WEBVTT

00:00:12.503 --> 00:00:14.705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4.805 --> 00:00:17.327
드디어 생강 국어 문법,

00:00:17.427 --> 00:00:21.059
장동준의 왕초보 만화 국어 문법,
마지막 시간입니다.

00:00:21.159 --> 00:00:25.885
국어의 변천을 끝으로
완강을 하게 되겠는데요.

00:00:25.985 --> 00:00:31.007
국어의 변천,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
꼭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죠.

00:00:31.107 --> 00:00:33.529
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
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.

00:00:33.629 --> 00:00:35.749
만화를 통해서
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35.849 --> 00:00:38.645
마지막 완강까지 최선을
다해준 우리 친구들에게

00:00:38.745 --> 00:00:40.251
미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.

00:00:40.351 --> 00:00:42.564
이따가 완강하게 되면 다시
한 번 축하드릴게요.

00:00:42.664 --> 00:00:44.317
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합시다.

00:00:44.417 --> 00:00:46.689
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.

00:00:46.789 --> 00:00:50.469
그러면 국어의 변천, 다른
말로 국어사라고도 하는데.

00:00:50.569 --> 00:00:53.202
일단 이런 흐름이에요.

00:00:53.302 --> 00:00:58.460
크게 고대 국어와 중세
국어와 근대 국어,

00:00:58.560 --> 00:01:02.201
이렇게 나뉘는데 실제로
기출 문제 비중을 보면

00:01:02.301 --> 00:01:06.022
중세 국어가 99%죠.

00:01:06.122 --> 00:01:08.528
중세 국어에서 낼 게 많고요.

00:01:08.628 --> 00:01:12.019
그다음에 실제로 고대랑 근대에서
건드릴 부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

00:01:12.119 --> 00:01:14.959
그래서 중세 국어가 대부분을
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.

00:01:15.059 --> 00:01:19.831
실제 공부할 때도 비중을 중세 국어에
초점을 맞춰서 해주면 돼요.

00:01:19.931 --> 00:01:23.333
그러면 고대 국어가
뭔지 잠깐 보면,

00:01:23.433 --> 00:01:25.172
10세기 이전까지입니다.

00:01:25.272 --> 00:01:30.795
제가 정말 세세하게, 자세하게
써놓기는 했는데.

00:01:30.895 --> 00:01:35.290
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
많이 나와 있죠.

00:01:35.390 --> 00:01:38.060
여기서 포인트를 보면 이런 겁니다.

00:01:38.160 --> 00:01:43.382
고대 국어의 포인트는
바로 어떤 거다?

00:01:43.482 --> 00:01:48.325
차자 표기, 이게 포인트.

00:01:52.183 --> 00:01:54.703
차 자가 빌릴 차 자예요.

00:01:54.803 --> 00:01:57.362
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문자.

00:01:57.462 --> 00:02:00.293
지금은 우리가 한글이라는
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.

00:02:00.393 --> 00:02:03.863
그런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
상황입니다, 고대 국어는.

00:02:03.963 --> 00:02:06.988
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
없이 우리말은 존재했었지만

00:02:07.088 --> 00:02:09.207
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

00:02:09.307 --> 00:02:13.855
안타깝게도 중국의 한자를
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다.

00:02:13.955 --> 00:02:18.232
그런 시기가 바로 고대
국어 언어 생활이다.

00:02:18.332 --> 00:02:23.484
그런데 차자 표기 방식이
서기체 표기도 있고,

00:02:23.584 --> 00:02:26.582
향차례도 있고 이두도 있고
구결도 있다고 이야기입니다.

00:02:26.682 --> 00:02:31.365
서기체 표기, 향찰, 이두,
구결 이런 것들을 보면

00:02:31.465 --> 00:02:34.310
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갖다가 썼다?

00:02:34.410 --> 00:02:37.154
이렇게 보기는 힘들고
어떻게든지 우리 식대로

00:02:37.254 --> 00:02:40.461
좀 바꿔 써보려고 노력했던
흔적이 있습니다.

00:02:40.561 --> 00:02:43.962
교재 잠깐 볼까요?

00:02:44.062 --> 00:02:48.940
교재를 보면 서기체 표기 방식이라고
해서 184쪽에 나와요.

00:02:49.040 --> 00:02:58.503
앞에 고유 명사 표기가 나오죠.

00:02:58.603 --> 00:03:00.799
그래서 이 부분에
대한 이야기 나오죠.

00:03:00.899 --> 00:03:05.441
일단 이 차자 표기를 다음과
같이 이야기를 해요.

00:03:05.541 --> 00:03:08.778
그림이 나와 있기는 한데 제가
다시 한 번 써드릴게요.

00:03:08.878 --> 00:03:14.856
첫 번째로 고유 명사에
대한 표기가 나와요.

00:03:14.956 --> 00:03:20.465

고유 명사는 인명이나 지명, 관직명
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.

00:03:20.565 --> 00:03:26.406
한자의 뜻과 소리를 다
이용했다는 이야기예요.

00:03:26.506 --> 00:03:28.771
포인트,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

00:03:28.871 --> 00:03:30.864
이런 게 시험에
나오지는 않습니다만.

00:03:30.964 --> 00:03:32.542
내신에는 나오겠지만
수능에는 안 나오죠.

00:03:32.642 --> 00:03:38.847
음차와 훈차의 두 가지 방식을
다 썼다는 이야기예요.

00:03:38.947 --> 00:03:42.051
그래서 삼국사기에 실린 문장을 보면

00:03:42.151 --> 00:03:46.129
소나 또는 금천이라고 한다는
백성군 사산 사람이라고 했는데

00:03:46.229 --> 00:03:48.874
거기 보면 소나는
어떤 사람의 이름을

00:03:48.974 --> 00:03:51.596
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거예요.

00:03:51.696 --> 00:03:54.742
그다음에 금천은
동일한 사람의 이름을

00:03:54.842 --> 00:03:57.170
한자의 뜻을 빌려서 표기한 겁니다.

00:03:57.270 --> 00:03:59.879
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,

00:03:59.979 --> 00:04:02.412
거기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했어요.

00:04:02.512 --> 00:04:04.919
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.

00:04:05.019 --> 00:04:12.147
소나 금천, 이게
동일인물이라는 건데.

00:04:12.247 --> 00:04:15.204
이 소 자가 흴 소 자예요.

00:04:15.304 --> 00:04:17.619
이거는 어찌 나 자인데,

00:04:17.719 --> 00:04:20.636
희다와 어찌, 이거는 빌린 게
아니고 이거는 음차예요.

00:04:20.736 --> 00:04:24.595
소와 나는 음을 빌려서
표기한 것이고.

00:04:24.695 --> 00:04:29.389
금천은 이게 쇠 금 자죠.

00:04:29.489 --> 00:04:31.752
천은 내 천 자예요.

00:04:31.852 --> 00:04:34.393
소나 쇠내, 비슷하잖아요?

00:04:34.493 --> 00:04:37.439
그래서 이거는 금천이라고
당시 안 읽었을 것이고

00:04:37.539 --> 00:04:39.327
쇠내라고 읽었을 거라고
추정이 됩니다.

00:04:39.427 --> 00:04:43.468
그래서 이거는 훈차다,
이렇게 보는 것이죠.

00:04:43.568 --> 00:04:44.917
그래서 옛날의 고유 명사,

00:04:45.017 --> 00:04:47.492
한 사람의 이름을 표기할
때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.

00:04:47.592 --> 00:04:50.876
음차와 훈차의 방식, 두 가지 방식이
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04:50.976 --> 00:04:52.587
이해 되시나요?

00:04:52.687 --> 00:04:57.274
그래서 고유 명사에 독특한
표기 방식이 있었고.

00:04:57.374 --> 00:04:59.908
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
것처럼 뭐가 있다?

00:05:00.008 --> 00:05:04.293
서기체 표기라는 것이 있다.

00:05:07.112 --> 00:05:11.252
이거는 184쪽에 일곱 번째
컷에 보면 나와 있죠?

00:05:11.352 --> 00:05:13.692
신라의 임신서기석이 대표적인데,

00:05:13.792 --> 00:05:17.582
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

00:05:17.682 --> 00:05:19.814
여기서는 제가 자세하게
써놓지는 않았지만

00:05:19.914 --> 00:05:25.296
천전서라고 하늘 앞에
맹세한다는 구절이 있어요.

00:05:25.396 --> 00:05:28.423
원래 중국식 대로 쓰면 맹세한다,

00:05:28.523 --> 00:05:30.796
서술어가 앞으로 빠져
나와야 되거든요.

00:05:30.896 --> 00:05:34.446
그래서 여기서는 천전서라고
되어 있단 말이에요.

00:05:34.546 --> 00:05:36.964
그래서 하늘 앞에 맹세한다.

00:05:37.064 --> 00:05:39.647
우리말 어순대로 쭉 한자가
배열돼있다는 이야기예요.

00:05:39.747 --> 00:05:45.599
그래서 서기체는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
배열해놓은 거를 이야기하고요.

00:05:45.699 --> 00:05:49.313
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두.

00:05:49.413 --> 00:05:52.799
주로 하급 관리의
공문서에 썼던 이두라든지

00:05:52.899 --> 00:05:57.524
그다음에 번역문에서 했던 구결.

00:05:57.624 --> 00:06:00.305
문예문에 쓰였던 향찰.

00:06:00.405 --> 00:06:02.638
이런 것들이 쓰임새에 따라서
구별을 많이 해요.

00:06:02.738 --> 00:06:06.192
이두, 거기 제가 써놨죠?

00:06:06.292 --> 00:06:09.584
주로 공문서.

00:06:09.684 --> 00:06:12.097
구결은 번역문.

00:06:12.197 --> 00:06:14.570

쓰임새에 따라서 많이 구별을 해요.

00:06:14.670 --> 00:06:19.859
그다음에 이거는 향가와
같은 문예문.

00:06:19.959 --> 00:06:24.446
이런 식으로 한자를
이용해서 우리 스타일대로

00:06:24.546 --> 00:06:27.865
바꿔서 써보려고 하는 노력을
많이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6:27.965 --> 00:06:31.339
고대 국어는 이 정도로
기억을 해주시면 되고.

00:06:31.439 --> 00:06:36.311
그다음에 187쪽에
중세 국어가 키포인트.

00:06:36.411 --> 00:06:40.471
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인데요.

00:06:43.933 --> 00:06:46.307
중세 국어는 거기
보면 이렇게 돼있죠.

00:06:46.407 --> 00:06:51.427
전기 중세 국어, 그러니까
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해서

00:06:51.527 --> 00:06:54.241
전기 중세 국어, 후기
중세 국어로 나누는데

00:06:54.341 --> 00:06:57.194
일단 전기 중세 국어는
안 보셔도 돼요.

00:06:57.294 --> 00:07:01.014
왜냐하면 훈민정음 앞 부분은

00:07:01.114 --> 00:07:03.487
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에
한계가 있기 때문에

00:07:03.587 --> 00:07:07.481
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문법
체계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

00:07:07.581 --> 00:07:12.156
그래서 실제로 중세 국어를
공부해야 되는 부분은

00:07:12.256 --> 00:07:13.638
후기 중세 국어다.

00:07:13.738 --> 00:07:17.262
그러니까 훈민정음 창제 이후를

배운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.

00:07:17.362 --> 00:07:21.575
그러면 상식인데 훈민징음은
언제 만들어졌을까요?

00:07:21.675 --> 00:07:24.884
그렇죠, 1443년에 만들어졌죠.

00:07:24.984 --> 00:07:32.155
1443년에 창제가 되고.

00:07:32.255 --> 00:07:41.509
3년 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
1446년에 반포가 되었다.

00:07:41.609 --> 00:07:45.685
이렇게 우리 친구들이
알고 있을 것입니다.

00:07:45.785 --> 00:07:50.479
그런데 훈민정음의 포인트는
여기서 어떤 거냐면

00:07:50.579 --> 00:07:52.365
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.

00:07:52.465 --> 00:07:56.416
창제 원리.

00:07:59.659 --> 00:08:01.533
이거 중학교 때 배우셨잖아요.

00:08:01.633 --> 00:08:03.667
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창제 원리?

00:08:03.767 --> 00:08:04.878
자음, 모음.

00:08:04.978 --> 00:08:08.120
우리 친구들이 기본 사항들만 다시
한 번 기억을 해주면 돼요.

00:08:08.220 --> 00:08:10.448
중학교 때 나왔던
건데 또 나옵니다.

00:08:10.548 --> 00:08:12.057
고등학교 올라와서 또
나와요, 이거.

00:08:12.157 --> 00:08:13.787
자음과 모음의 창제 원리.

00:08:13.887 --> 00:08:16.348
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.

00:08:16.448 --> 00:08:19.393
혹시 우리 친구들이
잊어버렸을까 봐.

00:08:19.493 --> 00:08:27.060
그래서 188쪽 맨 아래 부분 보면
한글의 제작 원리라고 해서 나와 있죠.

00:08:27.160 --> 00:08:29.504
지금 자음 같은 경우는
뭐를 기억해야 돼요?

00:08:29.604 --> 00:08:31.963
제가 포인트만 딱딱
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.

00:08:32.063 --> 00:08:38.749
자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자를
먼저 5개를 만들었죠.

00:08:38.849 --> 00:08:42.493
ㄱ, ㄴ, ㅁ, ㅅ, ㅇ.

00:08:42.593 --> 00:08:48.167
기본자를 만들고 여기에 획을
더해서 가획자를 만들었잖아요.

00:08:48.267 --> 00:08:50.734
그래서 기본자는 상응의 원리,

00:08:50.834 --> 00:08:53.076
가획자는 말 그대로 가획의 원리.

00:08:53.176 --> 00:08:55.470
그런 식으로 공부했었고.

00:08:55.570 --> 00:09:03.112
그다음에 기본자, 상형과 가획의
원리를 벗어난 이체자도 있었죠.

00:09:03.212 --> 00:09:05.927
그다음에 모음 같은
경우는 어떻게 했어요?

00:09:06.027 --> 00:09:07.450
모음도 똑같이 기본자가 있죠.

00:09:07.550 --> 00:09:09.119
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.

00:09:09.219 --> 00:09:15.416
천지인, 둥근 하늘을 본뜬
아래아, 땅을 본뜬 ㅡ, 사람 ㅣ

00:09:15.516 --> 00:09:17.564
여기에 어떻게 합니까?

00:09:17.664 --> 00:09:21.834
함용의 원리로 초출자.

00:09:21.934 --> 00:09:24.087
재출자, 이런 식으로

00:09:24.187 --> 00:09:26.811
ㅗ, ㅏ, ㅜ, ㅓ,

ㅛ , ㅑ , ㅠ , ㅕ

00:09:26.911 --> 00:09:29.671
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.

00:09:29.771 --> 00:09:32.066
그래서 이러한 창제의
원리에 대한 내용들이

00:09:32.166 --> 00:09:38.897
보기로 제시가 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
해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.

00:09:38.997 --> 00:09:40.892
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
나올 수 있으니까

00:09:40.992 --> 00:09:44.154
우리 친구들이 기억을
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

00:09:44.254 --> 00:09:46.376
여기에 대한 이야기는
제가 아주 자세하게

00:09:46.476 --> 00:09:52.849
다시 한 번 188쪽에서
189쪽까지

00:09:52.949 --> 00:09:56.711
아예 그림까지 그려가면서
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

00:09:56.811 --> 00:10:00.133
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고요.

00:10:00.233 --> 00:10:06.252
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
것이 이런 것들입니다.

00:10:06.352 --> 00:10:09.664
어디부터 보냐면,

00:10:09.764 --> 00:10:21.386
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면 되는데
191쪽에 세 번째 컷을 보세요.

00:10:28.305 --> 00:10:31.730
중세 국어의 주요 특징을 음운과
표기, 문법, 어휘별로

00:10:31.830 --> 00:10:33.180
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0:33.280 --> 00:10:34.476
이게 두 번째 컷에 나와 있고

00:10:34.576 --> 00:10:36.182
세 번째 컷부터 시작이 되는데,

00:10:36.282 --> 00:10:38.338

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
보라는 거죠.

00:10:38.438 --> 00:10:41.040
다 보기에 주어지지만,

00:10:41.140 --> 00:10:48.109
예를 들어서 중세
국어 시기의 받침.

00:10:48.209 --> 00:10:52.618
8종성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10:56.188 --> 00:11:04.507
그래서 중세 시기에 국어의 받침에는
주로 8개만 적도록 했어요.

00:11:04.607 --> 00:11:08.678
8종성법이라고 우리가
배웠을 것이고.

00:11:08.778 --> 00:11:19.386
그다음에 ㄷ과 ㅅ의
음가를 구별했다.

00:11:19.486 --> 00:11:25.921
예를 들어서 몯, 못.

00:11:26.021 --> 00:11:28.766
이게 다른 단어라는 거죠.

00:11:28.866 --> 00:11:31.625
ㄷ과 ㅅ 받침, 받침을
이렇게 쓰는 거에 따라서

00:11:31.725 --> 00:11:33.083
의미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.

00:11:33.183 --> 00:11:34.911
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?

00:11:35.011 --> 00:11:39.463
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
그냥 못하다의 의미.

00:11:39.563 --> 00:11:41.844
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

00:11:41.944 --> 00:11:48.472
아니면 망치와 못,
그 못이 될 수도 있죠.

00:11:48.572 --> 00:11:50.688
그런데 이 못은 어떤 못입니까?

00:11:50.788 --> 00:11:53.706
이렇게 ㅅ을 쓸
때에는 어떻게 된다?

00:11:53.806 --> 00:11:57.504
연못의 의미가 되는 거죠.

00:11:57.604 --> 00:11:59.198
그렇게 보면 돼요.

00:11:59.298 --> 00:12:01.257
그래서 ㄷ과 ㅅ의
음가가 구분된다.

00:12:01.357 --> 00:12:05.451
그다음에 또 어두자음군이
존재했었다.

00:12:10.694 --> 00:12:14.863
이런 식으로.

00:12:14.963 --> 00:12:16.518
요즘은 이렇게 씁니까?

00:12:16.618 --> 00:12:17.788
이런 식으로 안 쓰죠.

00:12:17.888 --> 00:12:20.626
이런 겹받침 같은 경우는
밑에, 아래 부분에 쓰는데.

00:12:20.726 --> 00:12:24.350
ㅄ 정도만 살아남았고.

00:12:24.450 --> 00:12:29.349
쓰다도 이런 식으로.

00:12:29.449 --> 00:12:32.482
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는 거.

00:12:32.582 --> 00:12:36.969
그다음에 모음 조화가
대체로 지켜졌으나

00:12:37.069 --> 00:12:38.938
시간이 지나면서 파괴가 되었죠.

00:12:39.038 --> 00:12:42.863
그래서 초반에는 모음
조화가 잘 지켜졌었다.

00:12:42.963 --> 00:12:49.584
뒤로 갈수록 점점 모음 조화가
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고.

00:12:49.684 --> 00:12:58.213
그다음에 또 방점을
사용해서 성조를 표시했다.

00:12:58.313 --> 00:13:03.725
글자 왼쪽에 찍는 점이라고
해서 좌가점이라고도 하는데

00:13:03.825 --> 00:13:09.487
그런 것들로 음의 소리에 높낮이도
표현을 해줬다는 이야기고요.

00:13:09.587 --> 00:13:12.410
그거 이외에도 문법상의 특징.

00:13:12.510 --> 00:13:14.512
주격 조사는 이 하나만 쓰였다.

00:13:14.612 --> 00:13:19.979
현대 국어에서 가, 이거는 근대
국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

00:13:20.079 --> 00:13:22.748
192쪽으로 넘어가면,

00:13:22.848 --> 00:13:25.097
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
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.

00:13:25.197 --> 00:13:27.137
남기, 이런 식으로.

00:13:27.237 --> 00:13:30.887
그다음에 ㅎ종성체언이라는
게 있어요.

00:13:30.987 --> 00:13:34.247
거기 보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
때는 ㅎ이 없이 쓰이다가

00:13:34.347 --> 00:13:35.997
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

00:13:36.097 --> 00:13:37.474
ㅎ이 나타나는 ㅎ종성체언.

00:13:37.574 --> 00:13:39.206
지금 192쪽입니다.

00:13:39.306 --> 00:13:41.542
192쪽에 컷에 나와 있죠.

00:13:41.642 --> 00:13:45.170
그래서 ㅎ종성체언도
좀 기억을 해주시고.

00:13:45.270 --> 00:13:49.790
이거 기출에 나왔었어요.

00:13:49.890 --> 00:13:52.902
이런 것도 기억을 해줘야
되는 부분이고.

00:13:53.002 --> 00:13:57.642
그다음에 중세 국어의
높임법 잘 나오죠.

00:13:57.742 --> 00:14:03.731
당시에도 주체 높임법, 객체
높임법, 상대 높임법.

00:14:03.831 --> 00:14:06.613
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.

00:14:06.713 --> 00:14:09.989
그래서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일 때
선어말 어미 시나 셔가 쓰였다.

00:14:10.089 --> 00:14:12.519
믿으시니, 믿으셨다 이런 식으로.

00:14:12.619 --> 00:14:16.257
그다음에 객체 높임법은 삽, 잡, 사옵
이런 시리즈가 있죠.

00:14:16.357 --> 00:14:22.182
상대 높임법은 여기 나와
있는 체로 쓰였다.

00:14:22.282 --> 00:14:25.793
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
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

00:14:25.893 --> 00:14:30.144
그다음에 어휘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
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만

00:14:30.244 --> 00:14:32.844
가볍게 읽어볼 만한 부분이고요.

00:14:32.944 --> 00:14:36.333
그래서 현대에 사라진 고유어가
중세 국어 때는 많이 쓰였고

00:14:36.433 --> 00:14:39.534
한자어가 귀화해서 고유어처럼
쓰인 것도 있다.

00:14:39.634 --> 00:14:41.090
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.

00:14:41.190 --> 00:14:43.173
그래서 어휘 파트는
그냥 가볍게 읽어주시고

00:14:43.273 --> 00:14:46.239
이런 거, 제가 칠판에
써드린 이런 것들이

00:14:46.339 --> 00:14:50.819
실제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보기에
제시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

00:14:50.919 --> 00:14:56.436
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잘 봐두시고
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0:14:56.536 --> 00:14:59.483
그러면 중세 국어 이 정도로 보고

00:14:59.583 --> 00:15:01.969
근대 국어로 넘어가는데.

00:15:07.257 --> 00:15:12.087

근대 국어 시대는 중세 국어가
현대 국어의 특징을 갖추어 가는 시기로서.

00:15:12.187 --> 00:15:14.788
그러니까 중세 국어에서
현대 국어로 넘어 가는,

00:15:14.888 --> 00:15:17.073
현대 국어는 지금 현재의 국어죠.

00:15:17.173 --> 00:15:21.443
현대 국어 사이에 껴있는
그런 상황이다.

00:15:21.543 --> 00:15:23.919
그래서 일종의 과도기라고
할 수 있고요.

00:15:24.019 --> 00:15:27.867
그래서 현대 국어의 특징을
갖추어 가는 중이다.

00:15:27.967 --> 00:15:29.373
이렇게 보면 됩니다.

00:15:29.473 --> 00:15:32.999
그래서 표기의 혼란과 더불어
다양한 국어의 뭐?

00:15:33.099 --> 00:15:36.438
변화 양상을 보여주었다.

00:15:36.538 --> 00:15:39.512
그러면 근대 국어의 특징.

00:15:39.612 --> 00:15:43.961
이거는 우리가 중세 국어랑
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느냐.

00:15:44.061 --> 00:15:47.555
이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15:47.655 --> 00:15:49.806
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?

00:15:49.906 --> 00:15:56.231
중세 국어랑 비교해봤을 때
일단 성조가 사라집니다.

00:16:01.163 --> 00:16:06.248
성조 중에서 지금 196쪽에
세 번째 컷부터

00:16:06.348 --> 00:16:08.868
저와 함께 쭉 같이 보시면 됩니다.

00:16:08.968 --> 00:16:11.960
성조 중에서 상성은 대체로
긴 소리로 변하여

00:16:12.060 --> 00:16:14.793

현대 국어의 음장으로
남아 있게 된다.

00:16:14.893 --> 00:16:21.529
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조가 사라지니까
방점 표기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16:21.629 --> 00:16:28.395
그다음에 반치음의 소실.

00:16:28.495 --> 00:16:33.696
주요 음운들이 소실이 돼요.

00:16:33.796 --> 00:16:45.950
반치음도 소실되고 그다음에
옛이응도 종성에서만 실현되고

00:16:51.972 --> 00:16:56.215
그 글꼴도 꼭지가 빠져요.

00:16:56.315 --> 00:17:03.896
그래서 ㅇ으로 변함.

00:17:03.996 --> 00:17:07.787
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
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.

00:17:07.887 --> 00:17:14.577
그다음에 아래아의 소실, 이거
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.

00:17:14.677 --> 00:17:19.362
그래서 1단계의 변화, 혹은
1단계 소실이라고 하기도 하고

00:17:19.462 --> 00:17:22.127
1단계 변화, 2단계
변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

00:17:22.227 --> 00:17:26.159
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
아래아가 주로 ㅡ로 변하고요.

00:17:26.259 --> 00:17:28.849
그다음에 18세기 경우부터는
첫째 음절에서도

00:17:28.949 --> 00:17:30.853
아래아가 주로 ㅏ로 변하는
양상을 보여줬어요.

00:17:30.953 --> 00:17:35.767
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

00:17:35.867 --> 00:17:40.856
가라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.

00:17:40.956 --> 00:17:43.582
지금은 가르치다인데,

00:17:43.682 --> 00:17:47.543

처음에는 두 번째 음절에
있는 아래아가 변해요.

00:17:47.643 --> 00:17:51.499
그래서 앞에 아래아는 그대로
있고 이거부터 변하고

00:17:51.599 --> 00:17:55.664
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앞에
있는 아래아마저 이렇게 변했다.

00:17:55.764 --> 00:18:02.726
이런 양상을 보여주었다는
이야기입니다.

00:18:02.826 --> 00:18:07.592
그래서 아래아의 소실을
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

00:18:07.692 --> 00:18:11.550
그다음에 원순모음화.

00:18:17.037 --> 00:18:21.153
원순 모음이라는 것이

00:18:21.253 --> 00:18:29.082
순음 밑에 ㅡ 모음이 원순 모음
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.

00:18:29.182 --> 00:18:36.411
그래서 예를 들면 믈이라고
썼는데 ㅁ이 순음이잖아요?

00:18:36.511 --> 00:18:39.727
그래서 순음 밑에 있는
모음이 어떻게 된다?

00:18:39.827 --> 00:18:42.097
ㅜ로, 물로 바뀌는 겁니다.

00:18:42.197 --> 00:18:46.224
이런 것들이 원순모음화라고
생각하면 되겠습니다.

00:18:46.324 --> 00:18:52.030
그다음에 어두자음군은
사라지게 된다고 해서

00:18:52.130 --> 00:18:56.699
어두자음군이 사라지고.

00:18:56.799 --> 00:19:01.801
거의 현대 문법처럼
변해가는 양상이죠.

00:19:07.422 --> 00:19:10.733
그다음에 또 구개음화도
점진적으로 드러나고

00:19:10.833 --> 00:19:13.569
그다음에 ㄷ과 ㅅ의

구별이 어려워지면서

00:19:13.669 --> 00:19:16.794
근대 국어에서는 7종성
표기로 바뀝니다.

00:19:16.894 --> 00:19:23.828
그래서 여기 7종성법도
하나 넣어주고요.

00:19:23.928 --> 00:19:26.537
그러니까 중세 국어
때는 8종성이었는데

00:19:26.637 --> 00:19:32.280
근대 국어에 와서는 7종성,
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.

00:19:32.380 --> 00:19:34.260
그다음에 중세의 이어적기 방식이

00:19:34.360 --> 00:19:36.524
현대의 끊어적기 방식으로
가는 과도기 현상으로

00:19:36.624 --> 00:19:43.010
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, 거듭적기.

00:19:43.110 --> 00:19:47.202
중세 국어 때는 이어적기가
대표적이었는데

00:19:47.302 --> 00:19:48.468
거듭적기가 나타나고

00:19:48.568 --> 00:19:52.150
현대 국어에서는 끊어적기가
나타나는 거죠.

00:19:52.250 --> 00:19:58.609
말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
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.

00:19:58.709 --> 00:20:04.683
이거를 쓸 때 님을, 지금처럼
이렇게 쓰는 거는 끊어적기죠.

00:20:04.783 --> 00:20:08.123
분철이라고 하죠.

00:20:08.223 --> 00:20:14.608
님믈, 여기 썼던 ㅁ을
한 번 더 쓰는 거는 거듭적기.

00:20:14.708 --> 00:20:18.945
다른 말로 중철 혹은
혼철이라고도 해요.

00:20:19.045 --> 00:20:22.408
그다음에 니믈, 이런
식으로 이어적는 거.

00:20:22.508 --> 00:20:25.382
이거는 연철이라고 하죠.

00:20:25.482 --> 00:20:31.996
그래서 우리가 이어적기는 중세
국어에서의 주요한 특징이고.

00:20:32.096 --> 00:20:34.668
물론 끊어적기도 일부 나타났었어요.

00:20:34.768 --> 00:20:37.052
하지만 이어적기가 대세였고.

00:20:37.152 --> 00:20:41.681
그러다가 근대 국어 때는
거듭적기가 대세였고.

00:20:41.781 --> 00:20:47.380
현대 국어에 와서는
끊어적기가 일반화되었죠.

00:20:47.480 --> 00:20:51.246
그다음에 198쪽에 보면
근대 국어의 문법.

00:20:51.346 --> 00:20:53.492
드디어 마지막 페이지.

00:20:53.592 --> 00:20:59.321
그래서 근대 시기에 드디어
주격 조사가 가가 출연했다.

00:20:59.421 --> 00:21:03.202
이전에 보면 중세 국어 시기에는
주격 조사가 이밖에 없었잖아요.

00:21:03.302 --> 00:21:06.291
그런데 여기서 가가
출현한다는 이야기.

00:21:06.391 --> 00:21:10.944
그다음에 순경음ㅂ계 활용은
15세기부터 반모음 ㅗ, ㅜ로 변하여.

00:21:11.044 --> 00:21:12.359
이것도 기출에 나왔었죠.

00:21:12.459 --> 00:21:14.438
그래서 ㅂ불규칙 활용이 되고.

00:21:14.538 --> 00:21:18.445
반치음 계열은 근대에 소실되면서
ㅅ불규칙 활용으로 변하게 된다.

00:21:18.545 --> 00:21:21.238
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
나와 있습니다.

00:21:21.338 --> 00:21:23.605
최근 기출에 언급된 부분이고요.

00:21:23.705 --> 00:21:28.477
사실 이 이야기가
기출문제에 나오기 전에,

00:21:28.577 --> 00:21:31.990
이미 이전에 제가
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고

00:21:32.090 --> 00:21:35.519
이거를 집필한 이후에 나왔어요.

00:21:35.619 --> 00:21:37.301
사실 그 문제가.

00:21:37.401 --> 00:21:39.405
순경읍ㅂ계의 활용.

00:21:39.505 --> 00:21:41.075
그다음에 반치음계 활용.

00:21:41.175 --> 00:21:45.275
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은
시험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

00:21:45.375 --> 00:21:48.614
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.

00:21:48.714 --> 00:21:53.465
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핵심을
딱딱 짚는 게 중요한 거예요.

00:21:53.565 --> 00:21:56.714
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?

00:21:56.814 --> 00:22:00.114
혼자 공부하면 시간이
너무 많이 걸리니까

00:22:00.214 --> 00:22:02.564
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
않은지 잘 모르잖아요.

00:22:02.664 --> 00:22:05.616
그러니까 그런 것들을
잡아주는 게 강사 역할이고.

00:22:05.716 --> 00:22:07.642
그래서 이런 부분들을
잘 보라는 거예요.

00:22:07.742 --> 00:22:08.932
시험에 나오니까.

00:22:09.032 --> 00:22:11.995
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
알고 접근하는 거랑

00:22:12.095 --> 00:22:15.534
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
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.

00:22:15.634 --> 00:22:18.164
정답을 골라내기까지의
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

00:22:18.264 --> 00:22:22.997
그다음에 객체 높임법 삽, 잡,
사옵도 이게 다 기능이 소멸되면서

00:22:23.097 --> 00:22:28.341
듣는 이를 높이고 공손하게 대하는
상대 높임법으로 바뀌었다.

00:22:28.441 --> 00:22:30.616
그다음에 근대 국어 어휘.

00:22:30.716 --> 00:22:33.604
어휘는 그냥 간단하게
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22:33.704 --> 00:22:36.629
근대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가
눈에 띄게 없어지고

00:22:36.729 --> 00:22:40.793
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
볼 수 있는데요.

00:22:40.893 --> 00:22:43.247
그다음에 또 새로운
단어가 추가되기도 하고

00:22:43.347 --> 00:22:46.055
그다음에 중국을 통한
서양 문물의 유입.

00:22:46.155 --> 00:22:48.506
이런 것들이 새로운
단어를 많이 만들었다.

00:22:48.606 --> 00:22:56.459
예를 들어 천리경, 자명종, 천주교
이런 단어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.

00:22:56.559 --> 00:23:01.566
그래서 단원 정리에 해당되는
부분들을 쭉 보시고요.

00:23:01.666 --> 00:23:05.416
그러면 우리가 문제를
한번 풀어봐야 되겠는데,

00:23:05.516 --> 00:23:09.776
여기서 가장 수능스러운 문제
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00:23:09.876 --> 00:23:14.175
207쪽에 마지막 문제,
4번 문제를 풀어보고

00:23:14.275 --> 00:23:18.184

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.

00:23:18.284 --> 00:23:22.599
가장 수능다운 문제를 풀어줘야 우리
친구들이 자신감이 높아지겠죠?

00:23:22.699 --> 00:23:27.015
그러면 수능 평가원
기출문제 풀어보기!

00:23:27.115 --> 00:23:31.403
보기에서 지금 무엇을
이야기하고 있어요?

00:23:31.503 --> 00:23:38.075
보기에서 아래아의 소실에
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.

00:23:38.175 --> 00:23:40.989
아래아의 소실.

00:23:41.089 --> 00:23:42.713
이렇게 문제에 나온다니까요.

00:23:42.813 --> 00:23:44.460
보니까 어떻게 돼있어요?

00:23:44.560 --> 00:23:55.918
제1단계 변화와 2단계
변화가 언급이 되어있죠.

00:23:56.018 --> 00:23:59.309
그래서 밑줄친 부분
중심으로 보면 돼요.

00:23:59.409 --> 00:24:03.669
ㄱ, 단어의 두 번째 음절 이하에
놓인 모음은 아래아가 ㅡ로 변하였다.

00:24:03.769 --> 00:24:05.626
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.

00:24:05.726 --> 00:24:11.068
그다음에 ㄴ에서는 첫째 음절에
놓인 모음 아래아가 ㅏ로 변하였다.

00:24:11.168 --> 00:24:13.940
정답부터 보면 2번이죠.

00:24:14.040 --> 00:24:18.778
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?

00:24:18.878 --> 00:24:27.820
지금 사삼이 사슴,
1단계 변화 맞잖아요.

00:24:27.920 --> 00:24:29.154
대응되고.

00:24:29.254 --> 00:24:30.785
2단계 변화.

00:24:30.885 --> 00:24:36.054
가장, 첫째 음절의 변화니까
이게 ㅏ로 변한 거니까

00:24:36.154 --> 00:24:37.876
가장, 2단계 변화에 들어갔죠.

00:24:37.976 --> 00:24:40.744
딱딱 맞으니까 정답이
2번이 되는 거죠.

00:24:40.844 --> 00:24:42.142
그런데 중요한 거.

00:24:42.242 --> 00:24:46.470
지금 아래아 소실의 변화
단계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

00:24:46.570 --> 00:24:48.266
문제를 바로 들어가잖아요?

00:24:48.366 --> 00:24:51.044
그러면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.

00:24:51.144 --> 00:24:53.513
나머지 거도 한번 확인해볼게요.

00:24:56.951 --> 00:25:00.271
마날이 마늘로 변한 것은
ㄱ의 사례에 해당하지만

00:25:00.371 --> 00:25:04.318
핡이 흙으로 변한 것은 ㄴ의
사례에 해당하지 않고요.

00:25:04.418 --> 00:25:07.605
밑에 제가 설명 잘 해놨죠.

00:25:07.705 --> 00:25:11.197
그래서 하나 대응하다보면 딱
맞아떨어지는 게 2번밖에 없죠.

00:25:11.297 --> 00:25:15.240
그래서 이렇게 보기에
나와 있는 거.

00:25:15.340 --> 00:25:17.584
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,

00:25:17.684 --> 00:25:22.253
중세 국어는 어떤 지식을 측정하는
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어요.

00:25:22.353 --> 00:25:24.147
이거를 아냐, 모르냐가 아니고

00:25:24.247 --> 00:25:30.875
일단 출제 유형을 보면
보기에 다 줘요.

00:25:30.975 --> 00:25:33.992
보기에 정보를 다 주는데

00:25:34.092 --> 00:25:38.058
문제는 이 정보를
미리 공부한 친구와

00:25:38.158 --> 00:25:42.228
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보면
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.

00:25:42.328 --> 00:25:44.869
미리 공부한 친구들이
이게 해석이 잘 돼서

00:25:44.969 --> 00:25:46.410
빨리 빨리 정답을 찾아가는데.

00:25:46.510 --> 00:25:49.413
이거를 안 본 친구들은
여기서 헤매요.

00:25:49.513 --> 00:25:53.841
또 중세 국어가 요즘 이야기하는
현대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

00:25:53.941 --> 00:25:57.640
더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
없다는 것이죠.

00:25:57.740 --> 00:26:01.701
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
우리가 미리 알고 가자는 측면에서

00:26:01.801 --> 00:26:03.795
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.

00:26:03.895 --> 00:26:08.787
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
평가원 기출 문제 풀었고.

00:26:08.887 --> 00:26:12.457
이제 마지막 문법 화룡점정
봐야 되겠습니다.

00:26:12.557 --> 00:26:14.576
바로 문법 화룡점정 O, X 퀴즈!

00:26:14.676 --> 00:26:17.031
두 문제 제시해봤고요.

00:26:17.131 --> 00:26:20.199
마지막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26:20.299 --> 00:26:22.914
생강 국어 문법 드디어 완강,

00:26:23.014 --> 00:26:28.531
장동준의 왕초보 만화 국어
문법 완강을 축하드리겠습니다.

00:26:28.631 --> 00:26:33.938
드디어 이 책을 다 끝냈는데요.

00:26:34.038 --> 00:26:38.699
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
많았다는 이야기하고 싶고.

00:26:38.799 --> 00:26:44.092
우리 친구들이 왕초보라고
생각하고 정말 쉽게

00:26:44.192 --> 00:26:48.014
국어의 문법 포인트를
전달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

00:26:48.114 --> 00:26:51.054
우리 친구들이 조금
더 욕심이 있다면,

00:26:51.154 --> 00:26:54.942
만약에 이 문법 강좌를 듣고
조금 더 욕심이 생겼어요.

00:26:55.042 --> 00:26:57.402
더 많은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싶고

00:26:57.502 --> 00:26:59.670
이제 뭔가 문제가 잘 풀린다?

00:26:59.770 --> 00:27:02.575
이런 느낌을 가져보고 싶은
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

00:27:02.675 --> 00:27:06.972
그런 친구들은 꼭 동준
샘 강의가 아니어도

00:27:07.072 --> 00:27:10.487
다른 강남인강 국어 샘들의
문법 강좌가 몇 개 더 있죠.

00:27:10.587 --> 00:27:12.308
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면서

00:27:12.408 --> 00:27:15.718
그래, 동준생의 생강 국어
문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

00:27:15.818 --> 00:27:17.735
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.

00:27:17.835 --> 00:27:21.511
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반복하면서
또 발전이 되는 것이고.

00:27:21.611 --> 00:27:27.699
그다음에 제 강좌 중에 또 베스트
강좌, 문법 탄탄대로가 있잖아요.

00:27:27.799 --> 00:27:31.159
문법 탄탄대로 강의를 쭉 들어가면서

00:27:31.259 --> 00:27:34.815
생강 국어 문법에 대한
내용을 복습해도 좋고요.

00:27:34.915 --> 00:27:39.439
그래서 이제는 우리
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

00:27:39.539 --> 00:27:42.564
국어 방과후 수업도 들을 거고.

00:27:42.664 --> 00:27:44.572
국어 실제 수업도 들을 거고.

00:27:44.672 --> 00:27:48.494
여러 수업을 통해서 국어
문법을 접하게 될 텐데

00:27:48.594 --> 00:27:52.435
이제는 더 이상 용어 같은
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.

00:27:52.535 --> 00:27:56.742
왜냐하면 웬만한 것들
다 건드렸거든요.

00:27:56.842 --> 00:28:01.564
그래서 이제는 공부할 때
불편하지 않을 것이다.

00:28:01.664 --> 00:28:05.138
그래서 완강을 착실하게
따라온 친구들은

00:28:05.238 --> 00:28:10.342
기분 좋게 고등학교 생활을
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.

00:28:10.442 --> 00:28:12.487
지금 현재 예비 고1이 아닌,

00:28:12.587 --> 00:28:15.414
고1, 고2, 고3
혹은 N수생 친구들도

00:28:15.514 --> 00:28:18.630
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
문법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

00:28:18.730 --> 00:28:22.124
그다음에 문법에서 어떤 것이
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

00:28:22.224 --> 00:28:26.034
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힘이
생겼을 거라고 믿습니다.

00:28:26.134 --> 00:28:30.719
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생강
국어 문법 열심히 했는데,

00:28:30.819 --> 00:28:34.572
우리가 사람인지라 반복을
안 하면 잊어버려요.

00:28:34.672 --> 00:28:38.249
그래서 공부하다가 혹시라도
놓친 게 있다든지

00:28:38.349 --> 00:28:40.142
아니면 모르는 게 생기잖아요?

00:28:40.242 --> 00:28:42.764
그러면 꼭 생강 국어 문법
내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

00:28:42.864 --> 00:28:45.482
그냥 기출 문제 혼자
풀다가 수능 문제 풀다가

00:28:45.582 --> 00:28:47.660
혹은 문제집 혼자 풀다가
모르는 게 생기면

00:28:47.760 --> 00:28:51.885
언제든지 Q&A 게시판을 통해서 동준
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00:28:51.985 --> 00:28:53.936
저는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해요.

00:28:54.036 --> 00:29:00.147
왜냐하면 사실 인강이라는 것이
저 혼자 이야기하는 느낌이기는 한데,

00:29:00.247 --> 00:29:04.452
우리 친구들이 Q&A나
수강후기로 소통을 해줘야

00:29:04.552 --> 00:29:09.357
그래야 우리 친구들도 발전하고
저도 발전하는 거예요.

00:29:09.457 --> 00:29:11.951
우리 친구들은 지식을
알아서 발전하는 것이고

00:29:12.051 --> 00:29:15.991
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
어려워하는지를 알게 되니까

00:29:16.091 --> 00:29:18.726
또 교육하는 사람으로서
발전하는 것이고요.

00:29:18.826 --> 00:29:24.501
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
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

00:29:24.601 --> 00:29:28.150
마지막이라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.

00:29:28.250 --> 00:29:31.739
이제 마무리 멘트하고
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00:29:31.839 --> 00:29:35.131
강남인강 다른 강좌에서
또 만나게 되겠죠.

00:29:35.231 --> 00:29:39.137
그러면 우리 친구들
정말 고생 많았고요.

00:29:39.237 --> 00:29:43.650
이제 문법의 기초는 다 잡으셨으니까

00:29:43.750 --> 00:29:48.463
힘내서 국어 문법
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
00:29:48.563 --> 00:29:51.729
마무리 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.

00:29:51.829 --> 00:29:58.124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